

갈수록 커져가는 CSO의 역할

* CSO(최고지속가능경영책임자)

사동철 수석연구원, ESG경영연구실(dsa@posri.re.kr)

Summary

- ESG 경영의 본격화에 따른 ESG 관련 리스크 증대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최고지속가능경영책임자(CSO)의 역할과 위상이 커지고 있음. 이는 CSO가 ESG 경영을 위한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전략 수립과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임
- PwC가 1,600여 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 결과는 1) CSO를 C 레벨에서 선임한 기업 수가 5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고, 2) CSO를 보유하고 적극 활용한 기업의 ESG 성과와 경쟁력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3) CSO의 활동은 산업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소비자와 접점을 이루고 있고 탈탄소화에 주력해야 하는 산업에 속한 기업들에서 CSO의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남
- 향후 지속가능경영이 기업의 생존 유지를 위한 비즈니스 전략의 핵심이란 점을 감안하면 CSO의 역량과 역할, 그리고 위상은 더욱 중요해지고 커질 것임

1. ESG 경영 강화로 CSO 역할과 위상 격상

- ESG 측면의 경영 리스크가 증대함에 따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최고지속가능경영책임자(Chief Sustainability Officer, CSO)의 역할과 위상이 커지고 있음
 -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10년 전에는 CSO의 역할이 일시적 유행에 그칠지 아니면 지속될지 불확실했으나, 10년이 지난 현재는 CSO가 경영진에서 필수 불가결한 역할로 자리 잡았고, 기업 경영에서 ‘지속 가능성’ 어젠다가 중요해지면서 위상도 커졌음
- ESG 경영이 강화됨에 따라 CSO의 직무 능력도 변화가 요구됨
 - 과거엔 CSO에게 주로 기후 리스크 관리 및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역량이 요구됐지만, ESG 경영이 대세가 되면서 기업이 당면한 ESG 경영 이슈를 최고 경영진 수준에서 다룰 수 있는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임원 전문 헤드헌터인 Egon Zehnder의 지속가능성 담당 임원에 따르면, CSO에게 요구되는 역량으로 기후 관련 전문 지식의 중요성은 예전보다 덜하며 최근에는 기업 정보 공시에 대해 CFO와 대화하는 능력을 중요하게 봄
- 또한 CSO가 기업의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전략 수립 및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위상이 크게 높아짐
 - 10년 전 CSO는 주로 IR이나 HR 부서 출신 중에서 지속가능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임명되었으나, 현재 CSO는 법적 이슈와 공급망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해야 하고 이사회에 참석해 회사의 비전을 지속가능성과 연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할 만큼 중요해짐
 - 또 다른 임원 전문 헤드헌터 Heidrick & Struggles의 지속가능성 책임자는 “CSO의 업무 대부분이 비즈니스와 연계된 중대성 이슈 분석 및 경영 전략과 연관되어 있다”고 언급

2. CSO 선임 증가세와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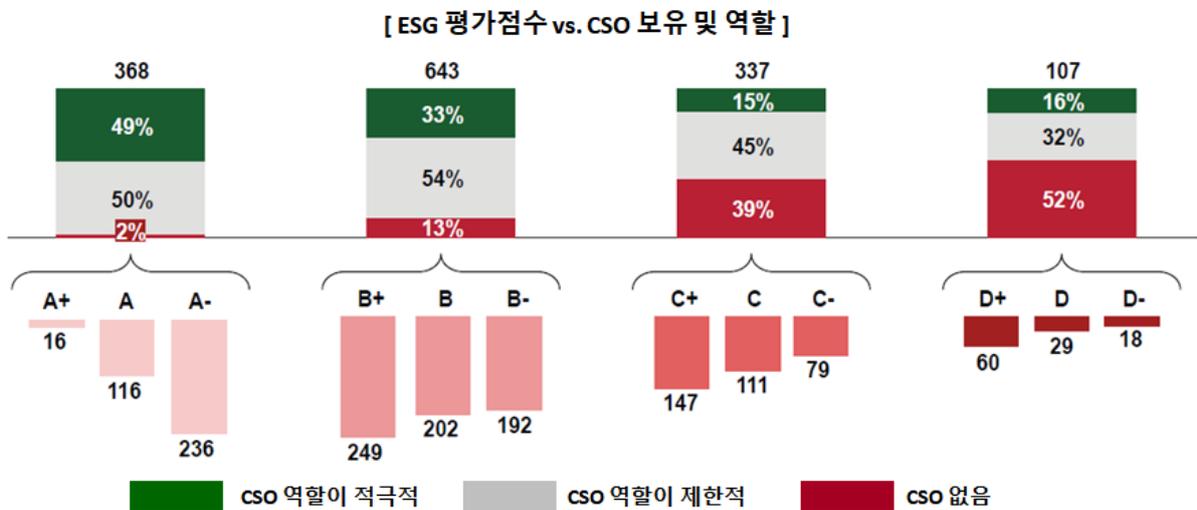
- PwC 산하 전략 컨설팅사 Strategy&가 1,640개 글로벌 기업을 조사한 결과, CSO가 임원급인 기업 수가 5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
 - 지난해 전 세계 62개국의 1,640개 글로벌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C-레벨에서 공식적으로 CSO 직책을 보유한 기업은 전체의 28%로 나타나, 2016년 조사 때의 9%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조사 대상 기업 중 50%는 CSO를 두고 있지만 임원급이 아니며 지속가능성 업무 관련 권한과 역할이 제한적인 기업이었고, 20%는 CSO가 없는 기업으로 나타남
- 최근 2년 사이(2020년~2021년)에 CSO를 선임한 기업 수(394개)가 지난 8년간(2011년~2019년)에 CSO를 둔 기업 수(414개)와 유사한 수준을 보여, 최근 들어 기업들이 CSO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며 CSO를 임명한 것으로 나타남

○ PwC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CSO를 두고 적극 활용한 기업의 ESG 성과와 경쟁력이 그러지 않은 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CSO 역할이 중요함을 방증

- ESG 평가에서 A 등급을 받은 기업 대부분(98%)은 CSO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절반 가량(49%)은 CSO의 역할이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C와 D 등급을 받은 기업들은 CSO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덜 활발한 데다 CSO가 없는 비율도 40~50%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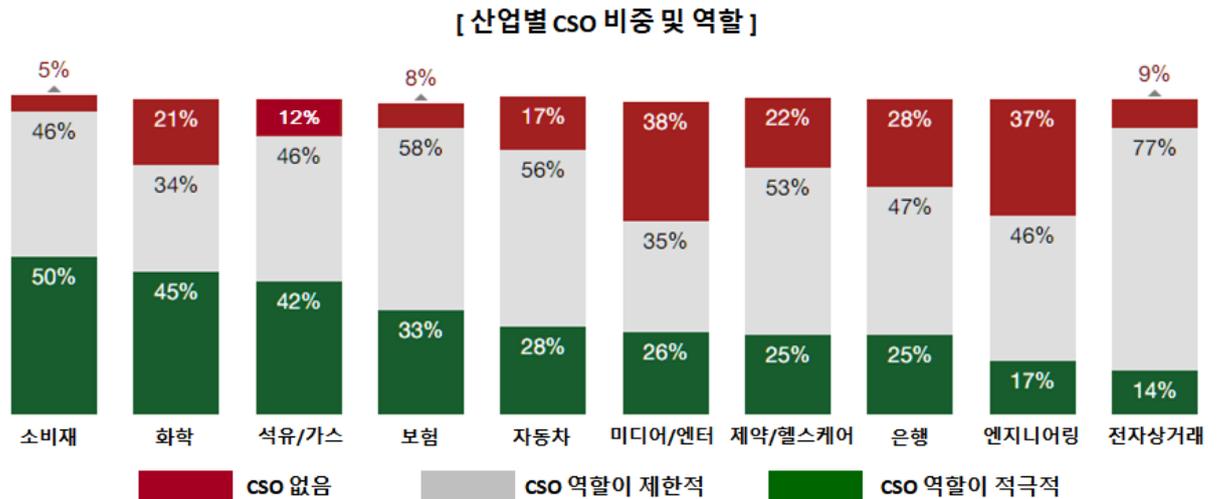
출처: PwC Strategy&, May 2022, Empowered Chief Sustainability Officers – The key to remaining credible and competitive

○ CSO의 역할은 산업별로도 차이를 보이는데, 소비자와 접점을 이루고 있는 산업과 탈탄소화에 주력해야 하는 산업에 속한 기업들에서 CSO의 역할이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 CSO의 활동은 산업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CSO의 활동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기업들을 업종별로 보면, 소비자와 접점을 이루는 소비재 산업이 50%로

가장 높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주력해야 하는 화학 산업과 석유/가스 산업이 각각 45%, 42% 순으로 높았음

- 반면 제약/헬스케어 산업과 은행 산업은 25%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엔지니어링과 전자상거래 산업은 10%대로 가장 낮게 나타남



출처: PwC Strategy&, May 2022, Empowered Chief Sustainability Officers – The key to remaining credible and competitive

3. 향후 CSO 역할 확대 전망

- ESG 경영 확대에 따라 ESG 관리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CSO 임명과 임원급 직책 설치의 빠른 증가세와 함께 CSO 역할 비중이 커질 것임
 - C 레벨의 CSO 선임과 역할을 구현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팩트 있고 성공적인 ESG 변환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
 - 또한 임원급 CSO가 ESG 리스크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은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신뢰도가 크게 상승
- 기후변화 대응을 중심으로 ESG 경영이 강화되고 규제 당국이 그린워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기업들의 CSO 영향력 확대와 대응이 불가피함
 - 기후변화에 대한 물리적 전환(physical transition) 및 배상 책임 위험(liability risk) 노출이 금융 업계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씨티그룹은 CSO를 책임자로 하는 넷제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넷제로 계획을 개발
 - 소프트웨어 그룹 오라클은 CSO를 포함한 환경운영위원회(environmental steering committee)를 구성하고, 기업의 평판과 재무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기후·환경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음

- 한편, 글로벌 석유 기업인 엑슨모빌과 로열더치셸이 지난해 친환경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공격 대상이 되었는데, 이러한 행동주의 투자자들의 탄소 중립 압박도 기업들의 CSO 역할 확대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지속가능경영이 미래 기업의 생존 유지를 위한 비즈니스 전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CSO의 역량과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

- CSO는 ESG 경영을 회사 경영 전략에 내재화하기 위해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기반으로 ESG 경영 이슈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해야 하며, 지속가능경영 전문가로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위한 임직원의 업무 역량 강화와 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 전환을 주도하는 것이 중요
- CSO 직무 실행을 위해서는 여러 부서와의 협업과 조율, 지식 관리가 요구되며, 특히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임팩트 있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필요함
- 기업이 ESG 경영 관련 정보 공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투자 유치, 자금 조달, 또는 사회로부터의 사업 운영권(SLO: social license to operate)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CSO는 ESG 경영 성과를 측정하고 정량화해 제대로 공시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임

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 FT, '22.7.18., Chief sustainability officers prosper as ESG risks mount
- FT, '11.1.4., Sustainability eyes its own corner office
- PwC Strategy&, '22.5., Empowered Chief Sustainability Officers - The key to remaining credible and competitive
- Strategy+business, '22.5.17., Positioning your chief sustainability officer for success
- 한국경제, '22.10.6., 위상 높아진 'CSO'... C 레벨 높고 전사 전략에 영향
- ESG경제, '22.7.21., ESG 리스크 커지자 기업 내 CSO 위상 '쑥쑥'